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는 갈 수 없고 전국의 국공립 실내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다시 관중 없이 진행됐다. 학교 수업 방식도 다시 원격 수업 등 비대면으로 바뀐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공존해야만 하는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시대라는 말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언택트' (비대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 (친환경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 사업과 민선7기의 주요 정책인 주거 복지나 도시 재생 사업은 지속적으로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추진해 도시의 재정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 상황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지만 최근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공공(LH, SH) 참여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두 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주거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노후 공공 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을 통해 신혼부부나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역 최대의 지방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수도권 이남에서는 최초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행자형 재개발 사업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총사업비 약 9.2% 절감, 원주민 재정착을 약 5.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또한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밖에 광주 도심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멈춘 채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또 노후한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공공 리모델링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매입 대상지로 공폐가 등으로 인해 범주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노후 주택으로 인해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약 30㎡규모의 주택을 청년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고령자 등 소외 계층의 재정착을 유도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다양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공동 주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공간의 공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주거 복지 측면에서 지역민의 재정착을 돕고 청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광주 도심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멈춘 채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나 정부 그리고 LH와 광주도시공사간 건축주와의 협의 등을 통해 투자자나 건설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한편, 공사 중단 방지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영 사업 이사를 공개 모집하며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도시공사가 현재 광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 산단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그린뉴딜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공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說

'통제 불능 위기' 코로나 방역망이 흔들린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방역망을 뒤흔들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고위험 시설'인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은 앞으로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도 금지된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그제까지 사흘간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17개 시도 전역에서 동시에 환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달하면서 전국적인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 비율도 20.2%가

지 치솟았다.

심각한 상황은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다. 그제 하루에만 광주에서 17명, 전남에선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광화문 집회 관련은 물론 김대중컨벤션센터·보건소·파출소 등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방역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방역 상황 악화로 거리 두기 단계를 또다시 높이게 되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없도록 지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린카진흥원 '방만 운영' 보고만 있을 건가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최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진흥원이 인사·회계·계약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최근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고 합작자 24명 가운데 6명을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한 것이다. 또 학위 구분 표기를 작성 요건에 맞추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모호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임의로 적용했다.

문제는 이처럼 그린카진흥원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데도 광주시의 통제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카진흥원 측은 광주시의 감사 처분 통보를 받고도 두 명만 가장 가벼운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했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다.

광주 그린카진흥원은 광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과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광주시 출자 기관이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를 대리해 483억 원을 투자한 1대 주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린카진흥원의 방만 경영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고

바다에 영광의 미래가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

영광 바다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들 하지만 바다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로 고심이 깊다.

최근 들어 영광 칠산바다를 중심으로 7개가 넘는 민간 사업자들이 대단위 해상 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업 구역 축소와 바다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지역 어민과 사업자 간에 찬반 분쟁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방안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각각의 이해와 여건을 감안해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영광군에 주어졌다.

영광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굴비 산업은 원재료인 참조기 어획량 감소와 굴비 식품 다변화 부진으로 매출액이 매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굴비는 냉동 저장 가능해 수급 조절이 가능한 유일한 양식 품종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

려 영광군에서는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 사업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들려올 것으로 기대가 높다.

영광군은 송이도, 낙월도 등 64개의 보석 같은 섬을 갖고 있다. 이들 섬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오가고, 살고 싶은 섬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던 서해바다 영광의 섬들이 하나하나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광 바다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와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 그리고 지자체의 현명한 결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시간을 과거로 돌려 보면 세계사를 바꾼 힘도 바다에서 나왔다. 고대 그리스는 지중해를 장악함으로써 번영을 누렸고, 스페인은 무적함대의 활약으로 국제 사회의 패권을 잡았다. 우리나라 역시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에 힘입어 동북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군 정책을 펼친 명나라는 정화함대로 누렸던 해양무역 네트워크를 상실하고 쇠락의 길을 걸었다.

바다는 보고(寶庫)다. 인류에게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준다. 먹을 것과 볼 거리는 물론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해주는 역할도 한다. 최근에는 해상 풍력이 한 국민 뉴딜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이야말로 향후 인류가 의지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기에 전국 74개 연안 시·군이 해양수산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입구에는 '바다에서 답을 찾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영광의 미래를 바다 경영에서 찾겠다는 의미가 담긴 표어다. 영광의 육지 면적은 475km에 불과하지만, 그 다섯 배가 넘는 2464km의 해역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육지가 가진 잠재력의 다섯 배 이상을 가진 영광 바다에서 영광군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그 해답을 찾겠다는 의미다.

영광군은 미래 바다 경영을 위해 '바다 드림팀'을 구성, 분과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다드림팀'은 영광군의 해양수산 행정의 미래 비전 제시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분과 위원회로 각각의 연구 과제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첫 시도로, 해양수산 관련 전직 관료, 학계·산

업계 관계자,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중량급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접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분과위는 자율적인 연구에 나서 자문 위원회 전문가 위원 등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검증해 최종 선정된 연구 과제는 중앙 부처와 전남도에 건의해 관련 사업비를 마련하는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분과위에서 영광 해상 풍력 주민 수용성 방안, 칠산바다 관광유람선, 불법천 어도(고기잡이) 설치, 관광형 등대 등 16개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추진중이다. 당초 3월 중에 발대식과 첫 회의를 가지려 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잠시 연기했다가 지난 7월 28일 해상 풍력 등 현안 업무 전문가·분과위원장 첫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영광 바다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실감했다. 바다로 나가 영광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겠다는 다짐도 높았다. 앞으로 이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어민 및 어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바다 행정'을 통해 바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체 역량을 키워 국가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영광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2040 광주도시계획 이렇게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



이상준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광주의 관문이라는 운암사거리 30여층의 B아파트, 각화터널 옆 40여층의 C아파트, 남광주 고가 옆 30여층의 아파트. 이들은 모두 하늘을 가리고 산을 가리며 지상 20층 이상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담당하게 한다. '광주다운 건축', '문화 예술의 도시 광주',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광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런 현실을 만든 우리 세대가 부끄러울 뿐이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난상토론을 거듭하는 관련 위원회 등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의 압력을 막아내지 못한 역부족이다.

공기관인 LH나 도시공사가 택지만 개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끝나 버리는 탓에 사업자가 사업성을 위해 난

개발을 일삼아도 속수무책인 것이 광주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세종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모제 방식의 택지 분양'이나 공공계획 및 공공건축가 제도도 검토해 볼 만하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고베, 싱가포르 등 해외의 경쟁력 있는 도시들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도시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도시 디자인 플랜·경관 관리 지침, 런던 조망 경관 관리 체계, 싱가포르 도시 마스터플랜, 고베대운 조망 경관 유도 기준 등이 그 예이다.

광주시에서 '2040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난개발을 이제부터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년 장기 계획인 '2040 도시 기본계획'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시 공간 계획의 최고 상위 계획으로서 위에서 예기한 법, 조례, 계획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는 물론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정하는 명확한 방향타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40 도시 기본계획'과 향후 시·도국의 광주다운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고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해 광주 도시 개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계획에 의한 경관 지구 등 지구 지정에는 행위 제한의 규제만 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구역에 지구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행위 제한 외에 설계비 지원이나 시범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공격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광주의 구역,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공간, 산업, 주거 정비, 교통, 환경, 입체적인 건축물 경관, 높이 등의 관리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주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사료된다. 느슨한 국가법의 규제로는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을 담아낼 수가 없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서울의 용도 지역이나 중소 도시, 시골 읍면 지역까지 용도 지역별 허용 한도가 똑같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도시의 특성

을 반영한 공간 관리가 되겠는가?

셋째,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나 '특별 건축 구역'과 같은 도시 특성별 건축물 경관, 높이 관리를 위해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법의 권한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할 그림을 가지고 도전해 보라' '롯데기힐스와 같은 랜드마크형의 복합 시설을 그려 오라'라는 주문과 함께 그럴 경우 용적률과 높이 등 공공이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개발 수요가 높은 중심지, 도심, 부심, 생활권 중심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넷째, 천문학적인 비용의 토지 공간과 건축물을 지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순환 보직 체계로는 힘들다.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문가 조직을 상시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관리하는 인적 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국가법과 광주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18조·19조에 있는 '도시 계획 상임 기획단'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도시 공간을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無等鼓

지구촌 어디에서나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수준과 강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번 정권을 빼앗기면 수년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 그 권력의 열매가 몹시도 달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란 또는 선거판에서 교묘한 품격을 찾는 행위는 우물에서 송능을 찾는 것처럼 헛된 일일 뿐이다. 하지만 대중은 언제나 '품격 있는 정치'에 목말라 해 왔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저열하게 굴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Our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처럼 '품격 있는 정치'에 대한 소신과 열망을 드러냈던 미셸은 4년 후인 지난 17일, 조 바이든을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찬조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품격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품격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약탈함이나 잔인함과 마주했을 때 그저

미셸 오바마는 4년 전 유명한 연설을 통해 '정치판에서의 품격'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미소 짓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도 맹렬히 맞서

품격 있는 정치

바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미셸 오바마는 4년 전 유명한 연설을 통해 '정치판에서의 품격'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냉정한 현실'을 무기 삼아 '거짓과 불신의 족쇄'를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며나면 미국의 사례지만,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극심한 갈등을 빚는 우리 정치판에도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막달 정치'나 '막장 정치'가 아닌 '품격 있는 정치'를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